

中央藥大 同門會報

2001. 여름호 (제5호)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CONTENTS

CONTENTS

시론 / 미래를 위한 투자, 4I · 3

교수프로필 · 4

동문회소식 / 2001년도 정기총회 개최 · 6
 2000년도 최종이사회 열려 · 8
 회장단 및 고문단 회의 · 9
 장학기금 관리위원 명단 · 9

학술논단 / 소화기계질환 한방약물 · 10

동기별소식 / 8회 ·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 12

동기회동정 / 5회 ·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마감하며... · 13

특별기고 / 미국서부 여행기 · 14

만평 / 일어나요 할 일 많아유... · 16

약국도움 / 약사 개개인의 의지가 문제 · 17

별난동문 / 세상에 별난 사람이 특별히 있을까? · 18

지부별소식 / 수원지부 · 20

모교 및 총동창회소식 · 21

회원동정 · 22

동문회 회비 및 기금 안내 · 24

학술대회 참관기 / 제11차 유럽 고혈압학회 학술대회 · 25

편집후기 · 26



미래를 위한 투자, 4I



황 공 용
(11회, 부회장)

지난해 7월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약사사회는 심한 충격과 혼란으로 그야말로 카오스(chaos)의 어둠 속을 헤맸다. 일찍이 제3의 물결을 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예견했지만, 제도 하나의 변화가 이렇게 엄청난 변혁을 몰고 오게 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약물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의료 서비스를 높여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의약분업의 달콤한 과일만을 강조한 반면, 그 과일을 숙성시킬 의사, 약사, 국민이라는 토양과 기후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분업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의약분업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주사제가 전격적으로 제외되고, 상품명 처방에 대한 대체조제가 제한되는 등 원칙이 훼손된 채 보험재정의 고갈 등으로 인해 국민부담과 정부재정 부담의 증가라는 악순환 속에서 기형적인 형태로 변화될 대로 변화되어 이미 순기능은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는 지난 5월 대한약사회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경영소득과 관련하여 70%가 불만을 표시한 반면 만족하다고 응답한 회원은 불과 30%였는데, 이는 의사와 약사 비율이 3대1이 될 때 원만한 분업이 된다는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현재 1.2대1인 약사와 의사의 비율을 감안하면 전국 18,000여 약국 중 1/3인 6,000여 약국은 의약분업의

수혜자가 되지만 나머지 12,000여 약국은 현행제도 하에서는 생존조차 불투명한 셈이 된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선 뾰족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사 직능이 이렇게 고난의 파국 속으로 빠지는데 대해 자포자기 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

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제에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

21세기에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생존을 위해 4I를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우리의 현실에 적절히 접목시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혼돈의 먹구름을 헤쳐나가는 실마리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 첫째 I가 Information(지식정보)이다. 6년제 약학대학이 안 된 현재로서는 연속적인 지식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Internet(정보의 바다)이다. 이미 인터넷을 떼어놓고는 의약분업이 성립되지 못할 정도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세 번째는 Innovation(개혁)이다. 약국의 경영형태가 변하고 있으며 제도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도 가속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Identification(정체성)을 들 수 있다. 약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존중되어지는 직능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약사로서의 자부심을 살려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함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절대절명의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 장 이 도 익 (23회)

- 중앙대 위생제약학 졸
- 동경대 생명약학 박사
- 담당과목 : 면역학, 약전학



학 부 장 이 민 원 (25회)
약학전공주임교수

- 중앙대 약학 졸
- 중앙대 생약학 박사
- 담당과목 : 생약학



제약학전공
주 임 교 수 김 하 형 (31회)

- 중앙대 위생제약학 졸
- 동경대 제약화학 박사
- 담당과목 : 약품물리화학, 일반약화학,
무기약품제조화학



김 기 호 (4회)

- 중앙대 약학 졸
- 중앙대 약학 박사
- 담당과목 : 약품미생물학



허 인 회 (4회)

- 중앙대 약학 졸
- 중앙대 약물학 박사
- 담당과목 : 약물학



임 철 부 (6회)

- 중앙대 약학 졸
- 중앙대 약화학 박사
- 담당과목 : 유기약품제조화학



김 창 종 (11회)

- 중앙대 약학 졸
- 중앙대 약화학 박사
- 담당과목 : 병태생리학



김 미 영

- 서울대 약학 졸
- 오하이오주립대 약학 박사
- 담당과목 : 생화학



염 정 록

- 서울대 약학 졸
- 오사까대 약품분석 박사
- 담당과목 : 약품분석학, 의약품
분석, 기기분석



최영욱(24회)

- 중앙대 약학 졸
- 중앙대 약제학 박사
- 담당과목 : 약제학



임채욱(28회)

- 중앙대 약학 졸
- Alberta대 약화학 박사
- 담당과목 : 약품화학



김대경

- 서울대 제약학 졸
- 동경대 생명약학 박사
- 담당과목 : 위생약학



황완균(26회)

- 중앙대 약학 졸
- 중앙대 생약학 박사
- 담당과목 : 약품식물학, 본초학



김홍진(22회)

- 중앙대 약학 졸
- Rutgers 뉴저지주립대 미생물학 박사
- 담당과목 : 약품미생물학



심상수(26회)

- 중앙대 약학 졸
- 가톨릭대 생리학 박사
- 담당과목 : 생리학, 해부학, 건강과 약



손의동(22회)

- 중앙대 약학 졸
- 중앙대 약리학 박사
- 담당과목 : 약리학, 독성학, 건강과 약



천영진

- 서울대 약학 졸
-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 박사
- 담당과목 : 생화학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2001년도 정기총회 개최

지난 5월 26일 서교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100여명의 동문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



다. 주요 안건은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의 및 감사보고에 이어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 심의와 함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특기사항으로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던 장학재단 설립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했으며, 지난 이사회에서 결의한 동문체육대회를 전향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동문회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한 동문들에 대한 수상이 진행되어 모든 동문들의 이름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모교 이도익 학장(23회)은 약대 50년사 발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문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모교 박명수 총장님과 함께 약대동문인 부인 유운자 여사(7회)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으며, 김명섭 동문(국회의원, 마퇴본부 이사장)과 동덕약대(회장 장동선), 성균관약대(회장 김영만), 숙대약대(개국 홍춘기 회장, 비개국 박정자 회장) 동문회 장단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축하합니다

총장감사패 : 김 옥 남(7회, 산호세카이저병원약국)

학장공로패 : 부산지부(남기탁, 12회), 영등포지부(윤성하, 14회)

약대동문회장 공로패 :

김 영 덕(7회) 성북구

현 병 호(12회) 서초구

강 용 순(15회) 제주도

박 종 애(16회) 동작구

김 광 식(16회) 강남구

김 용 우(16회) 송파구

윤 영 로(16회) 수원시

최 해 광(17회) 안양시

이 원 재(18회) 충주시

황 양 호(20회) 강서,양천

조 복(21회) 동대문구

박 수 길(27회) 평택시



김 영 덕(7회, 성북구)



현 병 호(12회, 서초구)



남 기 탁(12회, 부산시)



김 광 식(16회, 강남구)



박 종 애(16회, 동작구)



조 복(21회, 동대문구)



2000년도 최종이사회 열려

한편 4월 28일 서교호텔에서 2000년도 회기 최종이사회가 열려 2001년 총회를 5월 26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유영후 회장은 개교 83주년 모교의날 행사를 10월 첫주 또는 둘째주에 개최하여 체육대회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한석원 대한약사회장(8회)이 참석해 동문회 기금 5백만원을 기부하여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10차 회장단 회의

일 시 : 2001년 5월 23일 (土) 오후 5:30

1. 회장단회비 1년 결산보고
2. 장학기금관리 위원 선정의 건
- 정관에 의하여 선정하였음. (명단참조)
3. Home-coming Day 체육대회 개최의 건
- 각 시도지부장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10월 7일 체육대회로 결정하였음.
4. LA 총동창회 참가의 건(뉴욕지부 한인약사회 모임)
유영후(7회)회장, 이도익(23회)학장,
김명섭(5회)이사, 유정사(10회)부회장,
김창중(11회)교수, 강옥희(12회)여동문회장,
정찬현(20회)안양지부회장, 박희용(23회)편집위원



고문단 회의

일 시 : 2001년 4월 19일 (木)

장 소 : 동문회관

안 건 : 최종 이사회 개최건,
대한약사회장 선거보고
장학금 및 장학위원 선정

참석자 : 김기홍(1회), 오세형(3회)
최종목(3회), 김채운(5회)
임완호(6회)

장학기금관리위원

위원장 유영후 (7회)

총무서국진 (13회)

위원 김순일 (1회)	위원 천흥기 (4회)	위원 조의환 (8회)	위원 김명웅 (14회)
김기홍 (1회)	김채운 (5회)	이규진 (9회)	정도연 (14회)
장레 (1회)	이해석 (5회)	유정사 (10회)	이도익 (23회)
지선훈 (2회)	임완호 (6회)	박호일 (10회)	
오세형 (3회)	임성기 (6회)	황공용 (11회)	
최종목 (3회)	문장운 (7회)	강옥희 (12회)	

소화기계질환 한방약물



양 덕 숙 (28회)

脾 (소화기계)

소화란 음식물이 세포막을 통해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다.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소화관은 입에서 항문까지 길이가 약 9m로 가운데가 텅빈 근육으로 된 관이다.

소화관을 통한 음식물의 이동

구강 → 인두 → 식도 → 위 → 소장(십이지장 → 공장 → 회장) → 대장(맹장 → 상행결장 → 횡행결장 → 하행결장 → S상결장 → 직장) → 항문

1) 위

- ① 구조- 음식물의 저장과 소화에 관여하는 주머니 모양의 장기로 식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있다. 길이는 25-30cm이고, 분문, 기저부, 유문부, 위몸통으로 나눈다.
- ② 기능- 위점막의 위선은 염산, 펩신, 소화효소를 함유한 위액을 위 내강에 분비하고, 위운동을 하여 음식물을 잘게 부순 후 십이지장으로 보낸다. 위운동은 자율신경의 지배.

2) 소장

- ① 기능-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한다. 수분의 약 90%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3) 대장 :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성되며,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수분 및 전해질을 흡수한다.

- ① 구조- 맹장, 충수, 상행·횡행·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 항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는 1-1.2m이고, 팽대부로 되어 있다.

② 기능

가) 수분과 전해질 흡수: 하루 수분 1.5 l (90%흡수), 최대흡수량 4.5 l, 초과시 설사

나) 전해질흡수 : Na이온 보존효율이 높다. 150mEq 유입, 1-5mEq 배설.

다) 소화흡수: 지방질 소화(대장세균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리파아제 분해)

라) 대장 가스: 위장관의 가스 100ml정도

· 원인 - 삼킨 공기, H⁺, HCO₃⁻, H₂CO₃, CO₂, 세균발생가스

마) 대장의 운동: 대장의 수축-근육층의 서파 (SLOW WAVE)

팽기성 수축과 추진성 수축

· 배변: 대변이 직장을 팽창 수의적으로 복압을 올리면 배변반사

바) 대장의 질환: 설사, 변비

· 설사-수분 함유한 묽은 대변을 빈번하게 보는 것. 하루 대변 무게 200g 이상.

· 변비: 문명병-구미인보다 아프리카인 2배로 대변 통과 시간 빨라서 발생.

- 정의 : 변비는 일주일 2회 이하, 대변량 소량(35g) 이하, 배변하기 힘들.
- 증상 : 소화장애, 복부팽만, 두통, 여드름, 항문질환, 대장암 등

장부론에서 본

- 1) 脾는 中焦에 위치해 있으며 횡격막 아래에 있다. 後天의 본이다.
- 2) 運化작용-水穀운화 :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水液운화 : 흡수된 수곡정미중의 수분을 肺와 腎에 보내고 肺, 腎의 기화기능에 의해 汗, 尿로 변한 후 체외로 배출된다.
- 3) 升清작용-수곡정미 영양물질을 흡수하고 심, 폐, 머리, 눈으로 운송한다. 胃의 降濁과 반대되는 말. 원기가 충만하고 내장이 하수하지 않는다. 升清작용이 안되면 정신이 피곤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복창, 설사가 나타난다.
- 4) 主統血-혈관 안으로 피를 흐르게 하고 혈관 밖으로 출혈하는 것을 방지한다. 변혈, 뇨혈, 붕루가 일어남.
- 5) 脾臟의 液은 涎이고 體는 肌肉이고 四肢를 주관한다(비위기가 허하면 내장근육이 약하다)-위장하수
脾胃가 氣血을 生化시키는 원천이다.
- 6) 竅는 口이고 華는 脣이다. 口味の 정상여부는 脾胃의 運化기능에 달렸다.

비위의 병증

1. 비의 병증

- 1) 脾氣虛 : 원인-폭음폭식 과로 스트레스 정서불안-사군자, 육군자, 향사육군자
- 2) 脾陽虛 : 비기허외에 복냉을 띤다-대건중, 이중탕, 부자이중탕
- 3) 中氣下陷 : 내장하수 비기허증-보중익기, 황기건중
- 4) 脾不統血 : 귀비탕, 가미귀비탕, 십전대보탕, 인삼양영탕
- 5) 脾陰虛症 : 비음부족 비생허열; 맥문동탕합육군자탕, 사삼맥문동탕

2. 허실혼동형

- 1) 寒濕困脾형 : 위령탕, 곽향정기탕, 평위산, 실비음
- 2) 비위습열형 : 인진오령산, 인진호탕
- 3) 傷食證 : 식비 식적 상체 주식소상증 ;반하사심, 귀비탕, 보화환
- 4) 위장적체증 : 귀비탕, 반하사심탕, 육군자, 지실도체환, 목향빈랑환
- 5) 위장열결 : 황련해독탕합 승기탕, 양격산
- 6) 위한증 : 위가 차서 소화불량 위의 하강작용 실조로 오심구토증-계지생강지실환, 이중탕, 사역산
- 7) 위열형 : 위화증 사심탕 석고 지모

대장의 병증

1. 대장 허한증(설사) : 안색창백 구갈 없고 있어도 물이 먹고 싶지 않다- 위령탕, 삼령백출산
2. 대장액 허손 : 대장조삼증 대장허허 마자인환, 윤장환
3. 허실 혼동형, 대장습열 : 황련해독탕합 계지가작약, 갈근금련탕
4. 대장 열결형 : 열비형 대승기, 조위승기, 대황목단피탕, 양격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임 상 목
(8회, 동기회장)

서 울의 젓줄 한강수가 내려다 보이는 명수대에 우뚝 선 캠퍼스에서 아망과 패기에 찬 꿈을 키우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청운의 꿈을 안고 각자의 길로 헤어진지 어언 37년, 그리 급할 것도 없는 세상에 무어 그리 바빠 운명을 달리한 동기들이 벌써 20여명에 이르니 그야말로 세월의 무상을 닮을 수밖에. 먼저 가신 동기들의 명복을 삼가 빌면서, 여전히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기들에게 건투를 비는 동시에 고통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동기들에게도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1964년 졸업한 우리 8회 동기는 1984년 10월 20일 오후 5시에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120여명의 동기들이 모여 20여 년 동안 추억 속에 묻어두었던 학창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김기호 학장님과 작고하신 심상균 동문회장, 그리고 김명섭 서울시약사회장(현 국회의원)과 모교

교수님들, 선후배 동문들의 참석 하에 졸업 2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함으로써 동기 상호간에 긴밀한 유대와 협조로서 언제라도 뭉칠 수 있다는 무궁한 힘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 기억들이 강렬하여 통상 10년 주기로 거행되던 관례와 상관없이 빨리 얼굴을 한 번 더 보자는데 의기가 투합하여 1989년에 대전 유성호텔에서 졸업 25주년 행사를 색다른 기쁨 속에 가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끈끈한 정들이 뭉친 연장선상에서 1995년 2월 18일에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졸업 30주년 행사를 또한 우정과 화합 속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모든 동기들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

에 힘을 결집시켰으면 한다.

제약계에서는 삼진제약의 조의환 사장, 바이넥스(전 순천당제약)의 이백천 사장, 그리고 보령제약 부사장을 거쳐 데이문팜 대표이사로 있는 김돈기 사장이 있으며, 약대 졸업후 새로이 의사면허를 획득하여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이정복, 오창준 동기와 강원대 약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후학 지도에 여념이 없는 주왕기 교수, 또한 약사로서 특이하게 김선영 미용실 대학로점 원장으로 있는 허근희 동기 등과 같이 다방면에서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동기들의 모습들이 새삼스럽다.

물론 나머지 대부분이 개국가를 중심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지역주민



그 동안 크고 작은 약사사회의 각급 모임이나 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동기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기 보다는 당시의 정열과 의지를 한데 모아 최근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약사회장으로 탄생한 한석원 동기의 분투 노력

건강 수호의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하게 약사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8회 동기들의 건투를 빌며,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모교의 정신을 살려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다.

중앙약대5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마감하며...



우 리가 사랑하는 중앙의 상아탑을 떠나온지도 어언 40년! 흔히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데 변하길 무려 네 번, 정말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지난 세월을 한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으로는 50주년으로 기념행사를 연기하는 것이 어떨것느냐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어디 우리 위, 그러니까 1회에서 4회 선배님들이 우리만 못해서 40주년을 기념의 해로 정했겠는가?

6. 25 동족상잔의 폭풍에 떠밀려 정상으로는 64세에서 많으면 68세가 우리 동기다. 여기서 10년 후라면 80을 눈앞에 두는 동문도 많은데, 얼마나 많은 동문들의 명복을 빌어야 하나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선배님들의 전통을 따르기로 했다. 정말 주소 확인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동문이 세상을 하직했고 놀랍게도 하직한 동문이 환생하기도 했다.

정말 동문들의 근황을 모르고, 타계한 동문에게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안내장을 보냈고..., 미망인 말씀이 "98년에 별세하셨는데요."라는 전화에 안사람이 송구해서 죽을뻔했다는 말에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사과서신을 올렸지만, 어디 그것만으로 사죄가 될까?

그렇지만 보람과 기쁨, 환희와 감격 또한 없지 않았다. 멀리 영주에서, 다늦게 대구에서, 충청에서 하나 둘 잊혀졌던 동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한덕룡 교수님, 김일혁 교수님, 이도의 학장님, 유영후 회장님 그리고 소재를 몰라 애타했던 우리 학장님! 양형호 학장님이 오셔 행사는 감격, 그 절정에 이르렀다.

손에 손을 마주잡고 다 함께 부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사연의 "만남"처럼 정말 이번 40주년 5회 동기의 만남은 숙명과도 같은 만남이었다.

美國 西部 여행기

손 동 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995년 8월말에 35년간 근무하던 정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정년 퇴직한지도 벌써 만 6년이나 되어, 나도 이제 우리나라이로 72세가 되었다. 남들은 나보고 늙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평생 20대 대학생들과 같이 생활하였기에, 마음 만든 항상 20대의 청춘이다. 작년 고희기념으로 오색에서 대청봉(1708m)에 옛날과 어떻게 다른지도 전하여 보았다. 정상에 오르는데 4시간, 하산에 3시간 반으로 옛적과 하나도 변함이 없어 나도 기뻐다. 퇴직후 1주일애 하루는 모교의 대학원 강의와 Golf로, 다른 날은 환경학회와 고향 주민회의 일로 별로 쉴틈 없이 보내고 있다.

6월14일 60대 후반 교수 3인과 함께 인천 국제공항을 오후5시에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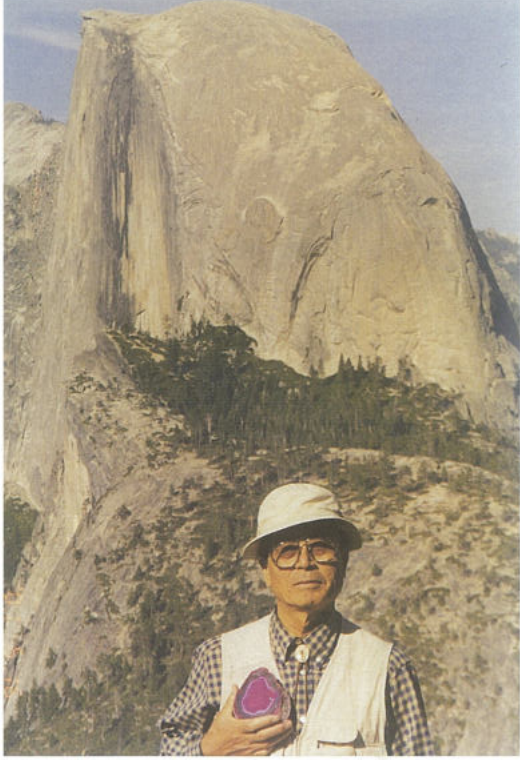
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동일 오전11시에 도착, 7인승 미니밴을 1주일간 렌트한 후, 120번 도로를 따라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서부로 달렸다. 그런데 요세미티에 거의 와서 120번 도로 표지판은 없어지고 남쪽으로 가는 49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도시를 통과할 때 복잡하여 잘못 들어선 것이다. 120번 도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고하여 요세미티공원의 남부 쪽으로 가기로 계획을 바꾸었다.

5시간만에 남부 요세미티 근처의 mariposa에 도착하였다. 우선 안내소에 들러, 저렴한 모텔을 소개받아 쉽게 숙소는 해결하였고, 첫날밤은 자가운전하면서 무사히 요세미티까지 도착한 안도감과 앞으로의 여행 계획에 대한 희망과 희열 때문에 손

수 만든 요리로 듬뿍 술을 마시며 일동은 즐겼다.

다음날에는 1) 요세미티 계곡 2) 투오름 초원. 표고 2,620m인 이 초원에는 7월에도 눈이 있다. 3) 빙하 지점 전망대. 요세미티 공원에서 제일 경치 좋은 곳으로서 1000m 밑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와 설산(雪山)의 눈이 녹아 내려 739m의 요세미티 폭포 등을 볼 수 있는 절경의 곳이다. 전망대에 서서 산과 하늘을 빨갭게 물들이며 넘어가는 태양을 쳐다 볼 때, 나는 유구한 자연에 생각을 돌려서 내일애의 활력이 용솨 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였다. 4. 거대 세코이아 삼림. 1880년대에는 큰 나무의 몸통이에 터널을 만들어 마차나 자동차를 통과하게 하여 나무에 대하여 난폭한 행동을 한 적도 있는 120m, 2,700년이나 되는 세코이아 삼림지대가 있다.

그후 계속 북진하여 오레곤주의 Crater Lake National Park(분화구 호수)에 18일 도착하였다. 산의 높이는 2,455m로 우리 나라의 백두산 천지와 비슷하다. Crater Lake는 미국에서는 가장 깊고, 세계에서는 7번째로 가장 깊은 호수(587.4m)이다. 공원의 크기는 7억400만㎡(2억2400만평)이며, 겨울에는 눈 신발등산, 스키를, 여름에는 보트관광, 낚시, 캠핑과 등산 등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 이곳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호수중의 하나이다. 거의 순수한 물은 햇빛의 적색, 황색, 녹색을 흡수하여 청색을 남게 한다. 청색 빛은 호수의 깊이에 따라 색깔이 바뀌고 호수의 독특한 색깔을 나타낸다. 깨



끗하고, 맑고, 찬 호수의 물은 1888년부터 1941년까지 인간에 의하여 투입되기까지는 고기가 없었다. 오늘날은 무지개송어와 연어가 살고 있다.

20일에는 포틀랜드에 도착하였고, 오레곤주와 워싱턴주 사이를 흐르는 컬럼비아 강을 막아 만든 댐의 수력 발전소와 연어 부화장 등을 보았다. 강가에서 낚시꾼이 1.25m의 고기(sturgeon)를 낚는 것을 보았다. 자로 재보고 1m 이하와 1.50m 이상의 고기는 법으로 못 잡게 되어있어 방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

1주일후 Amtrak과 버스로 캐나다의 밴쿠버로 향했다. 14회 김수범동문이 거기에 6월10까지는 살고 있어,

기차표 및 안내책자 구입 등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는 바이다.

밴쿠버에서는 58년졸 물리학과 윤개영 동문이 숙소와 교통편의를 봐주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물리학 교수였던 윤일병 선생님 댁에도 방문하여 점심식사도 대접하며 환담하였다. 11회의 박월준 동문부부가 우리 일행을 초대하여 저녁식사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어서 윤, 박 동문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6월 24일부터 7월1일까지 7박8일의 Alaska cruise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Alaska의 Skagway, Juneau, Ketchikan 등에서 약 30\$에서 200\$ 정도의 돈을 내고 옛 금광 채굴지, 연어낚시, 헬리콥터로 설원관광 등을 할 수 있다.

여행객은 세계각국에서 온 젊은 사람도 있었지만 senior가 더 많았다. 한국인은 볼 수 없었고, 다만 고이성수(약 1회, 전 동문회장)씨의 동생 이화수교수가 금년 정년 퇴임기념으로 L.A.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 "surprise tour"로 비행기표를 미국에

서 사서보내, 본인 부부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타고나서야 알래스카를 하게된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요즈음 세상에 이런 효자도 얼마나 있을까?

가는 곳마다 경관은 좋았지만, 더욱 놀란 것은 크다란 빙산이 녹아서 바다에 떨어지면서 굉음을 내고, 원형의 파도를 만들면서 확산되는 광경은 처음 보았으며, 지구온난화 현상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 2천 여명이 승선, 하선, 저녁 정찬 등에도 혼잡함이 없이 질서정연하였다.

70대 전후의 senior들이 의욕과 정열만으로 아무런 경험도 없고, 낯선 땅에서, 병들지도 않고 자가운전으로 20일간의 미국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되니 한없이 기쁘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 어디든지 도전하려고 한다.

모두에도 썼지만, 나도 이제 주량(酒量)이 적어지는 것을 보니 신체적으로는 늙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항상 청춘이다.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Samuel Ullman의 "청춘"의 시로 글을 맺을까 한다.



청 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강인한 의지, 뛰어난 상상력, 불타는 정열, 겁내지 않는 용맹심(勇猛心), 안이(安易)를 뿌리치는 모험심, 이러한 상태를 청춘이라 하는 것이다.

세월을 거둬들이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理想)을 잃을 때 비로서 늙게 된다. 세월이 흐르면 피부에 주름살이 지나, 정열을 잃을 때에 정신이 시든다. 고민, 의심, 불안, 공포, 실망-이런 것들이야말로 마치 긴 세월처럼 사람을 늙게 하고, 정기(精氣) 있는 영혼을 죽게 한다.

나이가 七十이든 八十이든, 누구나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은, 경이(驚異)에의 애모심(愛慕心), 즉, 하늘의 별들,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사물(事物)과 사상에 대한 흠앙(欽仰), 앞에 가로놓인 일에 대한 불굴의 도전(挑戰), 어린아이 같은 탐구심, 인생에 대한 환희(歡喜)와 흥미인 것이다.

사람은 신념을 가지면 젊고, 의혹을 가지면 늙는다.

사람은 자신을 가지면 젊고, 공포를 가지면 늙는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젊고, 실망이 있으면 늙는다.

대지로부터, 조물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아름다운과 희열(喜悅), 용기와 위엄(威嚴), 그리고 위력(偉力), 이러한 영감을 받는 한, 사람의 젊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감이 끊어지고, 비탄(悲嘆)의 백설(白雪)이 사람의 마음 속 깊이까지 덮고 냉소의 얼음이 이를 굳게 닫게 되면, 그 때 비로서 사람은 진정으로 늙게 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만명 일어나요! 할 일 많아유...

김기명 (18회, 본지 편집위원)

藥事法改正案



- 모성보호법
- 중세제한법
- 근로복지기본
- 연륜세무조사
- 한일어업협정
- 왜곡
일본모라셔
- 추경 예산안
- 기 라
민생법안

약사 개개인의 의지가 문제

약사는 약을 팔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약분업 후에 매약의 비중이 많이 감소했다.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약국이 이동을 하면서,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의 빌미가 된다.



이 준 (29회)

1. 일반의약품의 비중이 분업 후에 너무나 축소 되었다.

2. 낱알 판매 금지는 절대로 불리한 것이 아니다.

- (1) 몰래(?) 낱알 판매를 하는 약국 : 항상 사랑을 보면서 판매를 해야 하는 어려움과 매출 감소
- (2) 10알씩 파는 약국 : 범위반은 낱알 판매와 동일하며 매출이 늘 수 없다.
- (3) 갑구정동의 모약국 : 작년 12월부터 통약 판매만을 해왔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 ▶ 환자 1인당 객단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 나 혼자 하는 것 보다 대다수의 약국이 그리 할 때 훨씬 효과가 좋다.
 - ▶ 소화제 : 과립제 (500원 ~ 1,000원) + 소화액제 (1,000원) = 2,000원 ~ 1,500원
 - ▶ "한 번 먹을 꺼 줘요, 널 병원 갈거니까 ~" (1시간 이상 소요, 최하 3,200원)
 - ▶ 보통 한 통에 10알이므로 2~3일분이 된다 -> 5,000~6,000원

3.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병원 갔다가 3,000원 내고, 약국 갔다가 1,500원을 내 총 4,500원을 쓰게 된다. 약효가 큰 차이가 없다면 환자 1인당 5,000여원은 쓸 수 있다.

4.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것들 : 일반의약품 (과립제 포함), 건강보조식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5. 각 질환별 성분들 : 10정~12정 포장으로 되어 있는 일반의약품

- (1)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근육이완제
 - 가. Acetaminophen
 - 나. Ibuprofen
 - 다. Sodium Naproxen
 - 라. Clonixine
 - 마. Tiaprofenic acid
 - 바. Piroxicam β -cyclodextrin
 - 사. Methocarbamol
- (2) 호흡기계용약
 - 가. Acetylcysteine
 - 나. Carboxymethylcysteine-S
 - 다. Sobrerol
 - 라. Carbinoxamine maleate + Dextromethorphan HBr + Methylphenidrine HCl
 - 마. Noscapine + Potassium guaiacolsulfonate
 - 바. Benproperine phosphate
 - 사. 일반 종합 감기약
- (3) 이비인후과
 - 가. Pseudoephedrine HCl + Chlorpheniramine Maleate
 - 나. Pseudoephedrine HCl + Cetirizine HCl
 - 다. Aluminum aspirin + Diphenylpyraline HCl + Llysozyme chloride
- (4) 소화기 질환 : 한 번 먹을 소화제 찾는 사

람은 과립제와 액제이용 (최하 1,500원) 가. 일반 소화제

나. Ranitidine HCl + Magnesium oxide + Aluminum magnesium silicate

다. Dimethicone + Guaiazulene , Nifuroxazide

라. Loperamide HCl + Berberine + Acrinol + Biodiasmine

- (5) 치과질환
- (6) 피부과 질환

개정 약사법이 통과가 되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복약지도라는 것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명시함.

* 예를 들면,

(예1) 두통약 주세요!

(답1) 네, 여기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등)

(예2) 콘택600 주세요!

(답11) 여기 있습니다. 콧물이 있으신가 보죠?

(예) 아니요! 기침이 나는데요!

(답) 콘택600은 콧물약인데요

(예) 아 그러면, 기침약 좀 주세요!

(답) 이것은 기침약입니다!



세상에 별난 사람이 특별히 있을까?

저는 공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전 침례교 신학대학에 입학해 신학을 하다가 진로를 바꾸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6회 동문들과 같이 입학을 해서 군에 입대했다가 제대한 다음 8회 동문들과 같이 졸업하고 약사가 된 사람입니다.

학창시절에 돈이 없어 학교에서 정학을 더러 당했다는 것 외에 별난 데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이 눈도, 코도, 입도 같은 모양입니다.

약사가 된 후 한국에서 약국을 11년간 운영하다가 네 평 반 약국에서 좀 답답하기에 여행을 좋아하는지라 온 식구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이민).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두루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제가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것뿐입니다.

비록 사막이라 하지만 세계제일의 미네랄 온천(Natural Hot Mineral Waters)이 솟아나는 이곳 팜스프링 지역(Desert Hot Springs), 하나님의 사랑과 열기와 능력이 넘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 별난 사람이 특별히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각각 별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러하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별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러하겠지...

적은 국토 작은 나라이지만,

지구상 어디를 가든지 한국민족은 거기에 사는 민족

북극 지방! 너무 추워 다른 사람은 외면을 해도 거기 들어가

자리잡고, 적도 지방! 너무 더워 모두가 뛰쳐나와도 한국인은 거기에

가서 살고, 외로운 섬에 가서도 거기에서 꿈을 이루고,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세우는 민족, 미국의 넓은 땅, 동서남북 몇 만리를 운전하면서
큰 도시에 가도 한국인, 아주 작은 도시에 가도 김씨, 이씨, 박씨... 그리고 또, 한국
에선 귀한 집 아들 딸, 장관, 검사, 판사, 의사, 약사라 하지만...

그러나 조국을 떠나서는 무엇이든, 어디에든, 잘 적응하는 민족... 마켓, 주유소, 세탁
소, 옷가게, 선물 점... 무엇이든 못할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생애를 네 평 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오게 하신 목적이...?

활활 날아 미국의 동서남북을 둘러보니,

과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넓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하고 오묘하기도 하
니...

하나님이 별난 사역을 주시려고, 별난 민족 속에 나도 끼워 주셔서, 60년이 넘어서야
목사로 부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신비한 세상을 위해 별난 사역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것이리라.

여름이면 50도를 오르내리는 일기의 사막이지만, 온천이 나오는 이 곳, 팜스프링
(Palm Springs, California)에서 별난 삶을 살아가는 별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께서 별난 교회를 세워 주시고 일을 하라 하시니, 너무도 감사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땅 끝이라도 가라 하시면 순종하고 가야 할 텐데, 세계의 별난 관광객이 모
이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이 곳, 출석하는 성도들도 남미에서, 유럽에서, 한국에서도
방문한 분들... 나의 별난 생애는 하나님의 별난 계획 때문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
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곳에서 조용히 만나시려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이 곳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팜스프링 침례교회(California, U.S.A.) 이기정 목사



강 응 모 (18회, 수원지부장)

팔달산 소고

동문회원 생일파티, 애경사 챙기기, 최근에는 봄, 가을 동문단합 야유회와 매년 연말에 송년모임을 성대히 치루면서 동문회의 존재를 대내외에 과시하여 과연 중앙약대는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길고 긴 가을 끝에 단비가 오는가 싶더니 어느 덧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고, 습도와 온도가 불쾌지수를 끌어 올리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회지를 통해 수원시 동문이 지나온 발자취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수원시 약사회가 1961년 설립된 이후 총 14분의 분회장 중 11분의 분회장이 중앙대 약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수원에서의 중앙대 약대의 역사는 곧 수원시 약사회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약사회의 회무는 중앙대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중앙대가 붕치면 오히려 전체 개국 약사회원 단합에 저해가 되어서, 몇 년 전까지도 동문회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할 필요성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원시의 인구유입과 도시팽창으로 총 340명의 회원 중 중대출신이 80여명으로서 오히려 동문회의 필요성을 다같이 인식하고 동문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

습니다. 그 일례로 동문회원 생일파티, 애경사 챙기기, 최근에는 봄, 가을 동문단합 야유회와 매년 연말에 송년모임을 성대히 치루면서 동문회의 존재를 대내외에 과시하여 과연 중앙대는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에서의 중대 동문은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선후배간의 끈끈한 결속력으로 더욱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범상치 않은 시류에 아무튼 약계 동문들부터 부디 건강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고 발전하기를, 수원 동문 모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19혁명 41주년 기념식

지난 4월19일 모교 의혈탑 앞에서 4·19혁명 41주년 기념추모식이 열렸다.

김예리(사회복지 4년) 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명수 총장, 배용수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교직원 40여명이 참석하여 엄숙히 거행되었다.



모교 수시모집 경쟁을 11.6대1

지난 5월 17일 원서접수를 시작한 모교는 5명을 모집한 신문방송홍보계열에 287명이 지원해 57.4대1, 의학부는 7명 모집에 358명이 몰려 51.14대1, 약학부도 10명 모집에 288명이 지원해 28.8대1의 경쟁율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 11.6대1의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디지털 콘텐츠 리소스센터 설립

모교는 지난 5월 18일 “디지털 콘텐츠리소스센터”를 산업자원부로부터 5년간 총 65억원을 지원받아 설립한다고 밝혔다.

모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12명과 외부 연구인력 6~7명으로 구성하여 관련된 종합연구와 상품화는 물론 보안, 영상처리, 검색, 저작권보호 등의 기술개발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생산기 위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10여개의 업체들과 제휴할 계획이다.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2001년도 정기총회

지난 6월 2일 오후 3시 모교대학극장에서 2001 총동창회 36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배용수 총동창회장, 박명수 총장을 비롯하여 많은 고문들과 전현직의원 등 약 3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였다.

모교 박명수 총장은 축사에서 모교가 산업자원부로부터 64억원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리소스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고, 또한 24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디자인 경영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1캠퍼스의 열악한 공간확보를 위해 현 대학극장 및 체육관 부지 1만여평을 재개발 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거의 모델을 완성한 단계라는 기본 소식을 전한뒤 “사심없이 이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차기회장 선출은 많은 동문들의 추천을 받은 서청원(정의 18, 현 국회의원) 동문이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에 선출되었고, 인사말에서 “동창회는 회원들의 친목도 중요하지만 모교의 발전에도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학교와 재단에도 목소리를 내어 침체에 빠진 대학을 발전시키고 직장별, 지역별, 업종별 동창회를 활성화시키고 동창회에 많은 동문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원 동정란은 6천여 동문에게 동문들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장입니다.
직장이동이나 직위의 변동은 물론 주위 동문들의 경조사를 서신이나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사진을 보내주시면 함께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Home-Coming Day 동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본 회 유영후 회장은 지난 이사회의 발의와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동문체육대회를 동문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하기로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시도지부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으며,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일시 : 10월 7일 (일)

장소 : 모교 대운동장 및 부속시설

종목(예정) : 축구, 탁구, 바둑, 골프

Home-Coming Day 설문조사

10월달에 있는 “모교의 날” 행사에 관하여 각 시·도지부장(35명)에게 6월 중순경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ㄱ. 요 일 : 일요일(30)
 토요일(3)
 평요일(2)

ㄴ. 행사종류 : 체육대회(19)
 등산대회(9)
 학술대회(4)
 국내명소답사(3)

ㄷ. 만약 체육대회를 하게되면 종목은(3종목 이상 표시) :
 축구(15), 탁구(11), 바둑(11), 테니스(9), 골프(11)
 그외 추가할 종목이 있으시면 공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축마라톤 5~10Km, 명랑운동회)

장학기금 출연시 세금감면 혜택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롭게 장학기금 관리위원이 보강, 선정되었으며, 아울러 그간 세금감면 혜택 등을 위해 추진해온 장학재단의 국세청 인가로 본 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동문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장학재단 명의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져 연말정산 등에서 세금감면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동문들의 보다 적극적인 장학기금 출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유영후
		주소또는거소	인천 서 불노 308 월드아파트 119-602 61/2
종 지 내 용			
단체의 명칭	중앙약대 장학재단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 강남 역삼 707-38 테헤란오피스텔 1309		
결성 년월일	1997년 12월 19일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사업	장학사업	
	<input type="checkbox"/>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교육번호	220-82-60777
	<input type="checkbox"/> 비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1호 요건 미비 <input type="checkbox"/>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2호 요건 미비 <input type="checkbox"/>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 요건 미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1년 5월 9일			
역삼세무서장 인			

재경 개국동문회 토론회- 약사법 개정안 통과조치 당부

: 유통시스템 회원피해 없도록 하고 병원약사 포용도
주문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8회)은 재경 개국을 중심으로 본회 유영후 회장을 비롯 9개 약대 동문회장을 초청, 의약분업현안에 대한 설명과 약사회의 정책에 대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동문회장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토의하고 그동안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조속히 이번 국회에서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대학측에 당부했다.

故 도상학 교수 가족 모교 생약반에 장학기금 기증



지난 1월 24일 숙환(대장암)으로 별세한 동덕약대의 청산 도상학 교수(2회) 가족들은 모교 생약학 교실(주임교수 이민원)에 장학기금 천만원을 기증하여 평소 고인의 남달랐던 모교사랑과 후

배들에 대한 애착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지부 정기총회

일 시 : 2001년 4월 22일
장 소 : 소양강 숲불갈비
임원선출 : 회장 박기진(14회)
부 회장 : 강용순(15회)
부 회장 : 오영선(18회)
총 무 : 현익상(30회)



1회 정기총회

일 시 : 2001년 5월 12일
장 소 : 스칸디나비아
임원선출 : 회장 홍흥만

김기성 전 대약사무총장 숙환으로 별세

서울 관악구분회 초대분회장을 지내고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기성 전 분회장(3회)이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1974년 관악구분회 초대분회장을 출발로 회무에 투신, 2대 분회장을 역임했고 1978년 대약전문위원으로 첫발을 딛은후 정책기획실장(1985)을 거쳐 1996년 사무총장으로서 퇴임하기까지 무려 30년에 걸친 회무봉직을 통해 약권신장을 향한 큰 족적을 남겼다.



인사

국정자문위 보건복지분과위 31명 확정. 간사에 **임완호** 회장 선임

- 서화택(2회) 경기도 약사회 감사
- 임완호(6회) 풍전약품 회장
- 임성기(6회) 한미약품 회장
- 한석원(8회) 대한약사회장

결혼

- 5월 5일 **한석원(8회)** 이사 자녀 결혼. 스위스호텔 그랜드볼룸 1시
- 5월 12일 **안재민(3회)** 이사 자녀 결혼. 영등포소방회관 1시 30분
- 5월 26일 **이광표(1회)** 교수 자녀 결혼. 반포성당 1시 30분
- 5월 26일 **김동열(6회)** 이사 자녀 결혼. 동승교회 2시
- 6월 10일 **심재웅(12회)** 이사 자녀 결혼. 결혼문화센터 2시
- 6월 23일 **오춘택(12회)** 이사 자녀 결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1시

부음

- 5월 1일 **문옥자(8회)** 이사 부친상
- 5월 31일 **김기성(3회)** 이사 별세

- 7월 14일 **윤대봉(3회)** 총무 장모상
- 7월 19일 **김현태(20회)** 부회장 모친상

등정

- 4월 21일 **안병식(13회)** 이사 국제로터리 3690지구 모임
- 6월 10일 **김광식(16회)** 이사 강남성결교회 장로취임
- 6월 13일 **유영후** 회장 외 회장단 모교 **박명수** 총장과 면담

행사

- 5월 26일 **부산동문회(남기탁, 12회)** 정기총회
- 6월 6일 **서초구약사회(김기명, 18회)** 자선다과회
- 6월 6일 **금천구약사회(이호선, 20회)** 자선다과회
- 6월 16일 **성동구약사회(김영식, 23회)** 자선다과회
- 6월 21일 **성북구약사회(조찬희, 15회)** 자선다과회
- 7월 4일 **여자동문회(감국희)** 세종호텔

동문기금 및 장학기금

이사회비

김기성 (1회)	30,000원
홍흥만 (1회)	120,000원
안재민 (3회)	120,000원
최종묵 (3회)	120,000원
성열호 (3회)	120,000원
김현용 (4회)	120,000원
천흥기 (4회)	100,000원
김명섭 (5회)	120,000원
이해석 (5회)	120,000원
최길영 (6회)	30,000원
강창호 (8회)	120,000원
김 구 (12회)	120,000원

김종렬 (14회)	120,000원
신상직 (17회)	120,000원
일반회비	
임승진 (9회)	20,000원
김태영 (15회)	20,000원
박희용 (23회)	20,000원
김미혜 (31회)	20,000원

특별기금

한석원(8회) 대한약사회장	5백만원
이규진(9회) 대한약사회부회장	2백만원
5회 졸업 40주년 기념	2백만원

양주군 지부	100,000원
숙대약대(박정자)	100,000원
숙대약대(홍춘기)	100,000원
동덕약대(장동선)	50,000원
동작구(보름회)	100,000원
여동문회(8회)	200,000원

연간회비

회장단 : 240,000원
 이사 : 120,000원
 일반회원 : 20,000원

회비납입방법

은행지로 : 7613953
 조흥은행 : 994-04-008036
 종약동문회

고혈압을 다양한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인상적

박희용 (23회, 본지 편집위원)

지난 6월 15~19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1차 유럽고혈압학회(ESH) 학술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가졌다. 회의가 개최된 유서 깊은 밀라노 대학교가 있는 롬바르디아주의 주도 밀라노는 긴 설명 필요없이 밀라노 패션쇼와 두오모 성당과 스칼라 극장,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진 역사적인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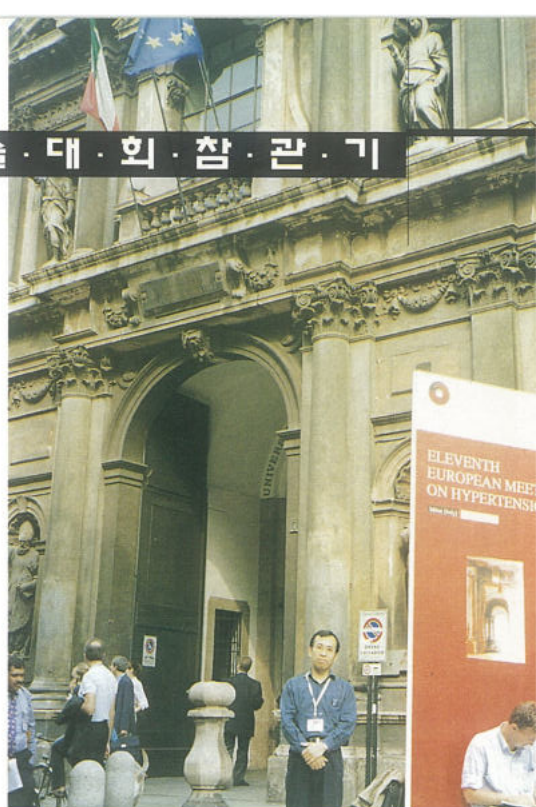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오랜 역사의 두께에 놀려 요즘 관점으로 보면 공간이 좁고 불편한 점도 적지 않았다. 소위 최신의 컨벤션센터가 아닌 고색창연한 대학교 강의실을 그대로 쓰다보니 각종 회의가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처음 찾아가거나 시간대 별로 장소를 옮기는 데 무거운 자료집을 들고 땀을 흘려야 했으며, 또한 제약회사 전시부스를 돌아보고 학회장으로 가거나 그 넓은 중심 광장을 죽 둘러싸고 전시되어 있는 포스터 발표를 열람하자면 적잖은 다리품을 팔아야만 했다.

고혈압이라는 단일 질환이 큰 주제이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소주제로 나눠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주요 학술행사의 주제는 고혈압을 크게 혈압의 측정, 심장, 혈관, 내피세포, Renin-Angiotensin 및 기타의 혈관작용성 물질, 치료 및 임상적 측면, 임상 시험, 신경학적 측면, 대사적 측면, 신

장의 측면, 분자생물학/유전학 및 역학적 측면 등의 관점에서 정리한 총 688편의 포스터가 전시되었고, 그 중에서 각 주제별로 선정된 141편의 논문이 구두로 발표되었다.

전체적으로는 white-gown hypertension과 같은 오류를 피하기 위해 활동혈압 측정의 중요성이, 노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특히 노인들에게 많은 고립성수축기 고혈압(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의 적극적인 치료가 새삼 강조되었으며, 만족할만한 혈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일요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병용요법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특징 중 하나는 ACE저해제와 보다 최근에 개발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차단제, 그리고 칼슘길항제를 기본으로 한 잘 고안된 장기간의 대규모 임상시험에 관한 발표로, 단순한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 고혈압 이외에 당뇨병, 흡연, 코콜레스테롤혈증 혹은 표적장기 손상과 같은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항고혈압요법을 실시할 경우 단순히 혈압만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및 뇌혈관 합병증의 예방은 물론 전체적인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



6개월 인턴 포함
약대 5년 졸업 후
약사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Doctor 칭호로 불러

틈을 내어 시내 몇몇 약국을 둘러 보았다. 서로간 짧은 영어 탓도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혼란스런 사회적 분위기가 없는 탓인지 약사(藥事)에는 무관심하여 전국 약대나 약국의 숫자 등에 일관된 답을 얻기 어려웠다. 졸업 전 6개월의 약국실습을 포함 5년 과정의 약대 졸업 후 약사고시에 해당하는 졸업 시험에 합격하여 약사가 되면 의사와 마찬가지로 Doctor 칭호로 불리는 관례에서 보듯 상호간 갈등구조가 아닌 비교적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밀라노 인구 160만에 480여개의 약국이 있으며, 처방약의 비중이 아무래도 높지만 동종요법(homeopathy)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약물의 사용에도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편집후기

황 공 용

(11회, 부회장, 편집위원장)

동문회보가 지난해 여름 창간되고 벌써 1년이 돌아왔다. 계절마다 한호씩 4호를 보내고 5호를 만들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옛속담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성구에 희망을 걸어본다.

徐

‘위대한 이인자들’을 읽다. 일인자를 단순히 잘 보좌해서, 아니면 무능한 일인자를 앞세우고 수렴청정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위대한 일인자는 진정한 일인자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고 똑똑하고 완고하고 고집 센 일인자도 역시 그 누군가의 도움없이 그 지위를 누릴 수 없었음을 삼척동자도 아는 역사의 교훈.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바보들만 주위에 두는 진짜 바보도 있었겠지만, 진정한 일인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하다못해 자신의 차고넘침을 부드럽게 다스려 줄 진정한 이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리이리라.

明

개정 약사법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모든 주사제 분업제외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복도 승강기등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을 경우 담합 행위로 규정돼 폐쇄된다. 국회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찬성 190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면, 약사 만평 니네들 어떨허니” (조형기 버전으로)쩍...

庸

이탈리아에 베니스는 없었다. 원래부터 베네찌아만 있었다고 한다. 잠시 스쳐가는 여행객일 지언정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의 말로 그 이름을 불러줄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감성도 메말라져 가는 세태, 시궁창 냄새나는 곤돌라 유람이 아니라 가이드의 이 한마디 지적에 문득 정신이 들었다. 베네찌아 실컷 구경하고 나서 “그런데 베니스는 언제 가나요”라는 우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洙

연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현황이 보도된다. 갑자기 쏟아 붓는 게릴라식 폭우라 하지만 天災나 人災냐를 놓고 왈가왈부 하는데 인근 동료 약국에도 적지않은 피해를 입어 컴퓨터, 처방전, 약품에 손실이 이만저만 아닌가보다. 해마다 이런 난리를 연중 행사처럼 치러야 하는 현실속에 일단 터지고 나면 서로 미루기 작전(?)을 교묘히 펴서 힘있고 목소리 큰자가 이기는 세상이다. 주사제도 뺏겼으니 이번엔 또 무엇을...

〈 편집위원장 〉

황 공 용(11회)

〈 편집위원 〉

서 국 진(13회)

김 기 명(18회)

박 희 용(23회)

김 정 수(26회)

동문여러분의
옥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 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비스루트균이 영양소까지 소화한다!

강력 소화제 - 비스칸·지



약리작용 및 특징

- 생균 자체가 내성포자를 생성하여 안정합니다.
- 유해균에 대한 강력한 길항작용을 가져 장질환에 우수한 치료효과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 비타민 B군 및 K등을 장내에서 합성하여 생체 영양을 공급합니다.
- 20 여종의 소화효소와 산화 환원효소를 생성하는 강력한 정상제입니다.
- 장기복용 약물과 병용투여 시 위와腸을 보호하며 약효를 증진시킵니다.
- 장내 유익균을 증식 시켜줍니다.
- 투여 균의 상호작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킨 강력 정상제 입니다.

제품명	성분(1캡셀, 1그램 중)	적응증	포장단위
비스칸·지캡셀	<i>Bacillus polyfermenticus</i> 균 83.35mg (Bisroot® 균)	정장, 변비, 묽은변, 복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240캡셀
비스칸·지산	<i>Clostridium butyricum</i> 균 25mg		100그램

Binex (주) 바이넥스
<http://www.bi-nex.com>



중앙대학교의학대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